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10821226-0180

# 光州日報

생존년의 연인,  
**엄앵란이 빛입니다.**  
 대표강심현호 장영환  
 광주지사 0621226-3222

The Kwangju Ilbo

## 새벽 6발·오후 1발...北 어제 미사일 7발 동해 발사 유엔 안보리 긴급소집...北 제재 논의

### 北미사일 발사

▶관련기사 3·4·11면

#### 韓·美·日 “도발적 행위”...쌀·비료지원 재검토

정부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북한의 즉각적인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쌀, 비료 등의 대북 지원 중단 방안을 고려하고, 오는 11~14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등 단계적인 대북 대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은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은 이번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대화로 문제를 풀고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부응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대북 지원 방향에 대해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대북지원 문제는 부처간, 관련국들간 협의를 해가면서 조율하고 단계적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 일 전 북한이 내부적으로 동해 특정해역을 설정해놓고 자국 선박들에게 ‘항해금지’를 지시한 상황을 파악,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응책 마련을 강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만약의 사태에 대비, 전군에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 군의 이상징후는 포착되지 않아 ‘대북방어준비태세’(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는 경상시 단계인 ‘데프콘 IV’를 유지했다.



### “대포동2호 발사 42초만에 추락”

**정부, 공식 확인**

북한이 5일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를 포함해 모두 7기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시험 발사했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7기의 미사일 가운데 5기는 동해에 떨어졌으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대포동 2호 미사일은 발사 42초만에 추락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함북 화대군 대포동에서, 오전 3시3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소재 발사장에서 각각 동해를 향해 대포동 2호와 수발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서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에 대해 이같이 공식 확인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대포동 2호를 비롯 북한이 전력화하고 있는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지대함 유도미사일 등 6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수석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발사한 숫자는 대포동 2호 1기와 노동 및 스커드급 중장거리 5발 등 총 6발을 발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미사일 6기 발사에 이어 오후 5시20분께 같은 발사장에서 각각 동해를 향해 대포동 2호 중거리 미사일 1발을 추가로 발사했다고 합참 관계자가 밝혔다.

서 수석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대포동 2호는 발사 후 42초만에 동해상에 추락해서 실패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는 일단은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발사체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당국의 고위 소식통은 이날 오전 정부 발표에 앞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대수가 모두 10기라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

정보당국의 고위 소식통은 이날 오전 “북한이 오늘 아침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10기”라면서 “북한의 모든 미사일부대는 상호연동체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종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테마칼럼’ 필진 바꿉니다

광주일보 테마칼럼 필진이 7일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정치, 경제, 여성, 문화 4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테마칼럼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과 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김선명숙씨



이상영씨



이연희씨



지건길씨

◇김선명숙씨(방송인·칼럼니스트)  
 ▲연세대 국문과 졸업 ▲서울대 여성학 석사 ▲전 동아일보 기자, 전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편집인, 전 KBS ‘미디어포커스’ 진행 ▲저서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 ‘소설 허난설헌’

◇이상영씨(부동산 114(주) 대표이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동산정책회의 전문위원 ▲한국리모델링협회 교육연수위원장 ▲부동산 114(주) 대표이사 ▲저서 ‘아파트의 경제학’ 등

◇이연희씨(부스앤뉴스 공동대표)  
 ▲서강대 졸업 ▲전 중앙일보·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부스앤 뉴스 공동대표

◇지건길씨(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졸업 ▲전 프랑스 주재 한국문화원장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동아대 초빙교수

光州日報社

### 광주지역 與 국회의원들 박시장 명예훼손 고발키로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박 광대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기로 해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간 갈등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박광대 광주시장이 5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지역예산을 삭감했다”는 발언에 대해 박 시장이 이날 오전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정당회의”의 국비 지원과 관련, “강봉균 국회 예결위장이 예비비로 지원키로 했지만 지역출신 의원들이 국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막식 참석을 확정된 뒤에야 국비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여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박 시장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정당회의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벨상 광주정당회의 예산은 상임위 심의가 종료되고 예결위 심의 막바지에 광주시가 예산 반영을 요구한 사업”이라며 “결국 광주지역 의원들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봉균 예결위장에 전달, 2006년도 예비비에서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후원학원 창립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성남캠퍼스 031-911-1114 ▶T.02-610-5000-2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jnsc.ac.kr  
 ▶진남캠퍼스 058-9551 ▶T.081-360-5000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추천하는 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

한석드레미 수준의 최첨단교육시설·최고의 교수진  
 1000학년도 학비기준·과외를 도입

4년제대학  
 1. 교육목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2. 교육과정: 학부, 석사, 박사 과정  
 3. 교육방법: 강의, 세미나, 실용교육, 현장실습  
 4. 교육장비: 최첨단 교육장비  
 5. 교육환경: 쾌적한 교육환경

등록금: 3,000,000원 (과외 포함)  
 교육비: 1,000,000원 (과외 포함)  
 입학: 1월, 3월, 5월, 9월  
 문의: 02-948-3000

www.jscu.ac.kr